

• 신년사 •



▲ 이영남 회장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협회장입니다.
협회가 2기 출범이후 많은 발전을 했다고는 하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2003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도약의 발돋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회원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의 국제화 및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및 전문 네트워크 구축 등 여성벤처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수가 배로 증가하면서 회원사들의 많은 요구를 충족 시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끊임없는 회원사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회는 임원을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휴먼네트워크 인프라 및 여성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도 2002년도와 같이 정부예산을 책정 받았습니다. 여성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e-lancer 양성사업과 투자마트, 해외전시회등 여성기업에 대한 투자 분위기 조성은 물론 여성관련정부기관 및 단체와 벤처관련 경제부처가 여성벤처기업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인 여성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부 IT지원사업에 삼성 SDS, 이화여대와 같이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실질적인 여성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대책 정부에 건의 하겠으며 여성부, 서울시 여성정책관실과의 연계사업인 해외전시회등을 통하여 한국의 여성벤처기업을 한국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여성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벤처기업인들은 기술중심으로 시작된 기업인만큼 기업인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기업에 충실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성 있는 경영으로 성장할 때 분명히 벤처의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2003년도에도 회원사 각자가 화합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여성협회 소식 •

여성벤처기업인 송년의 밤

협회에서는 '2002년 감사의 여성벤처기업인 송년의 밤'을 가졌다. 금번 송년의 밤은 올 한해 회원사 사업에 도움을 받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거나, 다른 회원사 대표께 소개하여 원원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졌다. 이날 모임에는 회원사 및 사회 각계 인사 1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 한국여성벤처협회 임원진이 내빈께 인사 후 자축하는 모습

'벤처기업아카데미' 강좌 개최

협회에서는 지난 달 5일부터 닷새간 '여성벤처기업아카데미' 강좌를 열었다. 이 강좌는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성벤처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경영전략 수립 및 자료조달, 투자유치 전략에 관한 강좌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전략, 자금조달 방법, 벤처캐피탈 투자기법 및 사례, 경영관리 및 재무 중심의 벤처기업 IPO전략등 기업금융에 계속되는 자금난 해소를 위한 강좌들로 구성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강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경영혁신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여성벤처기업 대상 벤처아카데미 강좌